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3월 22일(일) 제1581호



2026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 그 나라의 길

###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2주밖에 안 남아 4월 3일까지 오전 5시 30분 각 캠퍼스 본당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이하 40일 새벽기도회)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

3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40일 새벽기도회 5주 차 주제는 '그 나라의 길'이다. 3월 23일(월) '걱정하지 말라' (마 6:25-30),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 6:31-34), 24일(화) '심판하지 말라' (마 7:1-5), '기록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마 7:6), 25일(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 7:7-11),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마 7:12), 26일(목) '열매로 분별하라' (마 7:15-20),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마 7:21-23), 27일(금) '반석 위에 지은 인생' (마 7:24-27), '권위 있는 가르

침' (마 7:28-29)를 주제로 설교가 이어진다.

3월 30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이어지는 고난주간에는 해외비전교회 담당목사들이 설교한다. 4월 3일(금)에는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와 더불어 온누리교회 전체 교역자 특순을 선보인다.

고난주간에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예배 전후 침묵으로 기도한다. 매일 한 끼 이상 금식기도하고, TV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 불필요한 미디어 사용을 자제한다.

온누리교회 로비에는 '회개의 십자가'가 설치된다. 자신의 죄와 기

도제목을 적은 종이를 나무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40일 새벽기도회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주제로 4월 3일(금)까지 오전 5시 30분 국내 각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는 성도들의 40일 새벽기도회 참여를 독려하는 특별영상 '2026 40일 새벽예배 브이로그'를 업로드하고 있다.

이강자 성도(한강공동체)는 "처음 참석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인데 요즘 제게 필요했던 말씀을 들었다"면서 "'나를 따르라'는 표어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CGN, 4월 30일까지 참가자 모집

CGN이 K-CCM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를 개최한다. 4월 30일(목)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미 데뷔한 프로 가수나 찬양사역자도 참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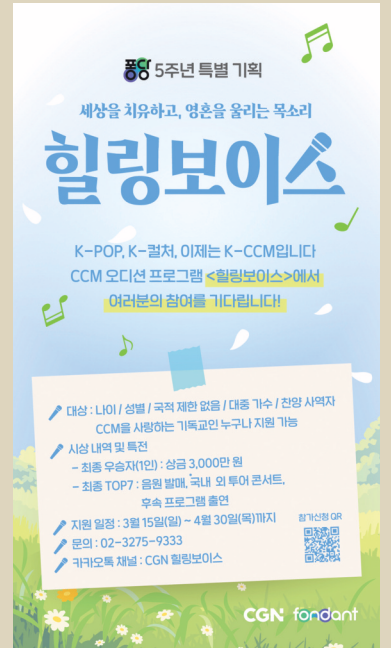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에 참가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지원서와 무반주 가창 영상, 사진 파일을 이메일(cgnhealingvoice@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무반주 가창 영상은 자유곡 1곡과 지정곡 20곡 중에서 1곡을 선택해서 각각 1분 이상 부르고, 그 영상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해서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와 지정곡 리스트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모집이 끝나는 5월 심사를 통해 예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7월부터 예선과 본선, 결선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정한다. 본선 무대부터는 탈락자가 발생하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 1인에게는 상금 3천만 원을 수여하고, 결선에 진출한 TOP 7인에게는 CCM 음원 발매, CGN 주최 국내외 투어 콘서트 참여, CGN 프로그램 출연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CGN 대표 전진국 장로는 "수년에 걸쳐 K-pop, K-culture 등이 차례로 인기를 얻었는데 이제는 K-CCM이 전 세계에 복음의 나팔을 불게 될 것"이라며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를 통해서 성령의 멜로디와 목소리가 전 세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을 선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3275-9333

/ 박지혜 기자



##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 6주 차 '겸손과 순종' ... 말씀 순종, 이웃 구제 등 실천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 부인의 제자도'가 4월 5일(부활주일)까지 이어진다. 6주 차(3월 23-28일) 주제는 '겸손과 순종: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다. 성인공동체와 대학청년부는 23일(월) 하나님의 말씀이나 권위자의 권면에 즉시 순종하기, 24일(화) 소외된 이웃을 위해 구제금 마련하기, 25일(수) 아무도 나서지 않는 곳은 일 먼저 하기, 26일(목) 나의 필요보다 나라와 민족, 피조물을 위해 기도하기, 27일(금) 미디어 금

식과 한 끼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 묵상하기, 28일(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사순절 묵상 노트 작성하기 등을 실천한다.

차세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회복하기: 정체성'을 주제로 실천 사항을 이어간다. 23일(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거울을 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라고 말하기를 실천한다. 24일(화)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고 특별하게 만드신 것을 기억하고, 남

들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찬양 한 곡 부른다. 25일(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요한일서> 3장 1절을 암송한다. 26일(목)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을 위한 헌금을 준비한다. 27일(금)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단점을 노트에 적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고 말해본다. 28일(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실천한다.

/ 홍하영 기자

## CGN 개국 21주년 감사예배

3월 27일 오전 10시 서빙고 경찬홀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 개국 21주년 감사예배를 오는 3월 27일(금)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드린다. CGN 임직원, 온누리교회 리더십, 교계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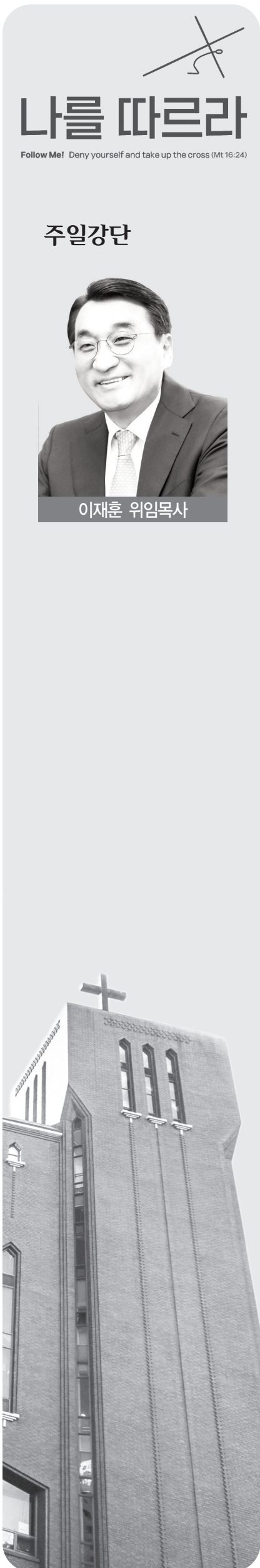
CGN 개국 21주년 감사예배에서는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임)가 사회를 보고, 김용기 장로(실행위원장) 대표기도, CGN 직원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CGN 이사장) 메시지, 전진국 대표(CGN) 감사 인사, 함태경 본부장 장기근속자 감사패 수여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CGN 개국 21주년을 기념하며 특

집 다큐멘터리 세 편을 준비했다.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CGN TV편성 기준), '복음을 위해 한 걸음 더', '소년이 어른이 되어', '땅끝의 증인들'이 방송된다. 3월 24일(화)에는 'THE NEW 하늘빛향기'가 기독교 OTT '풍당'과 CGN TV 채널에서 라이브로 방송될 예정이다.

CGN은 지난 2005년 개국했다.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 CGN'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 세계에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 시몬: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들다

누가복음 6:12~16, 사도행전 1:12~14

##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동일한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전후 5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이름을 모은 <고대 후기 유대인 이름 사전>이 2002년 발간됐는데, 이 사전에서 분석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당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요셉, 엘르아살, 유다, 요하난, 여호수아 등의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유대 남성 중에서 18.2%가 시몬 혹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성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은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당시 여성 38.9%가 마리아 혹은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사용한 이유

왜 이 이름들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었을까요? 같은 이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처드 보컴(Richard Bauckham)이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이것을 잘 분석했습니다.

당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남성 이름 아홉 중에서 여섯은 하스몬 가문의 아들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즉, 맛다디아와 그의 다섯 아들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의 이름이었습니다. 여성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마리아와 살로메도 역시 하스몬 가문 가족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스몬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주전 2세기에 독립을 쟁취하고, 국가를 이룬 마지막 유대인 정권 통치 가문이었습니다. 이들 가문의 구성원 이름이 로마 통치 시대에서도 계속 인기를 얻고,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스몬 가문의 애국심에 대한 존경 때문이었습니다. 하스몬 가문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게 된 계기는 '마카비 혁명' 때문입니다.

주전 167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을 때 당시 제사장이 맛다디아였습니다. 하스몬 가문의 제사장인 맛다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특히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는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큰 축제로 지키는 '하누카'라는 수전절입니다.

그 이후 1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스몬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조 이후 처음으로 실질적인 독립 자치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스몬가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자립정신과 독립 정신, 그리고 실제적

로 독립 자치 국가를 이루었던 것에 대한 존경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제2의 하스몬 가문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스몬가의 가족들과 후예들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이기 시작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이름을 자주 사용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당시 가장 많이 사용됐던 '시몬'이라는 남자 이름은 하스몬 가문의 2대 통치자였던 시몬 타시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남자 이름을 많이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에게 승리하기를 바라는 민족의 염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두 명 나옵니다. 베드로도 시몬이었고, 오늘 살펴볼 열심당원도 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영어로는 젤트(Zealot)인이라고 합니다. 과거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표기해서 마치 그가 가나안 출신 사람인 것처럼 여겼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해서 '열심당원'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나 옛날 한글 성경에서도 '가나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 번역을 가져온 것인데, 히브리어의 '깁나나', 즉 '열정'이라는 뜻을 지역 이름으로 잘못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서나 성경 번역에서도 '가나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번역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열정이라는 뜻을 가진 '젤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젤로인'이라고 표기합니다. 영어의 젤트(Zealot)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지어진 것인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열심당원'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열심, 열정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와 같습니다.

### 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든 하나님 나라 군사로

열심당원들의 정신적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자들을 창으로 찔러 심판했습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이 열심당원들의 모델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이어받은 하스몬 가문이 당시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고, 투쟁했던 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주전 6년 가말라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의 인구 조사에 저항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신앙과 애국심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당원 활동은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마사다 요새 전투에서 비극적인 절정에 다다릅니다. 주후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도시 전체를 함락했을 때, 유대인들이 유다 광야 절벽에 있는 해발 400m 높이의 마사다 요새로 피합니다. 그곳에서 3년을 버팁니다. 967명이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된 마사다 요새에서 3년을 적극적으로 버팁니다. 주후 73년 1만 5천명의 로마 군인들이 거대한 흙을 쌓아 올려 경사로를 만들어서 성벽을 돌파했을 때, 그들은 로마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자유인으로 죽겠다는 선택을 해서 960명이 자결합니다. 그곳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꼭 방문하는 '마사다 요새'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타협 없는 신념, 민족을 위한 열정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글자는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목숨을 건 이념과 신념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는 유대 사회에 한편으로는 존경, 또 한편으로는 공포를 가져다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칼'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로 여겨졌고, 가이사에게 절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열심당원 중에서도 핵심 분파가 있는데, '사카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카'라는 것은 작은 칼, 중동 지방의 곡선형 단검입니다. 늘 품에 작은 단검, 곡선형 단검을 가지고 다니면서 암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스몬 가문이 칼을 들어 싸워 성전을 청소했듯이, 열심당원들도 칼을 들어 로마를 청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칼로 여겼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이제 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 시몬이 경험한 세 가지 변화 이념을 뛰어넘는 복음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경험한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이념을 뛰어넘는 복음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의 눈에는 예수님이 돋보였을 것이고, 그분께 이끌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권세 있는 말씀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면 그분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쉽게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열심당원 시몬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열정이 하나님 나라, 예수의 복음 증거자 열심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심당원들이 추구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던 열심당원과 달리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심당원들이 추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셨고, 칼을 사용하는 무력적인 행위를 책망하실 뿐이었습니다.

시몬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언젠가 열심당원들이 꿈꾸는 대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의 독립에는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뛰어넘어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행복한 나라, 새로운 세상이 올 것으로 믿었지만, 로마의 압제보다 근원적인 죄의 압제에 사로잡힌 영혼들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념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 앞에서 생명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이념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념은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외부적인 환경 혹은 법과 제도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의 바다에 감격해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세상이 변화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념은 사람의 걸모양만 변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본성을 재창조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념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

의 나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 극단을 뛰어넘는 화해

둘째, 극단을 뛰어넘는 화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열심당원들이 증오할 뿐만 아니라 암살하려고 했던 세리 출신 마태가 있었습니다. 예전의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마태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반역자와 그 반역자를 처단하는 암살자가 같은 범상에 앉아 있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12제자 일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갈등이 아니라 화해를 만드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만나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보서는 이 두 사람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야 하고,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될 법도 한데 두 사람이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툼의 주인공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겠다고 함으로써 다른 제자들과 늘 다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1942년 인종 차별이 매우 심했던 미국 사회에서 특히 조지아주에 흑인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많았던 주였습니다. 그때 클라렌스 조던(Clarence Jordan)이라는 한 목사가 코이노니아 농장을 만들었는데, 그곳은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노동하고 수익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의 많은 협박과 테러, 보복 속에서도 깨끗하게 흑인 농부들을 보호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하나 됨을 이루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가 훗날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운동의 모태가 됩니다. 클라렌스 조던이라는 목사의 제자로 함께하게 된 밀라드 풀러(Millard Fuller)라는 백만장자가 당시 어

렵게 살고, 집이 없는 흑인들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 주는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서 해비타트 사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대적이었던 두 인종이 하나가 되는 일은 복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시몬과 마태가 같은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극단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열정을 뛰어넘는 성화

셋째, 열정을 뛰어넘는 성화입니다. 열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될 때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열정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하스몬가의 열정을 이어받은 열심당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열정은 소멸하지 않고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소멸시키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교정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향한 분노, 그 엄청난 에너지가 복음을 전하는 창조적인 열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은 때로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매우 열정이 많았고, 마니교에도 심취해 탐욕의 노예로 살던 그가 변했습니다. 지적인 열정도 많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열정으로 바뀐 교

회의 중요한 지도자이자 신학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 열심당원의 전사에서 다락방의 기도자, 전도자로!

시몬이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밤에 시몬은 다락방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순절 사건 현장에도 있었고, <사도행전> 제자들의 명단에서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이후 그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기도 되었습니다. 로마를 향한 저항 대신에 성령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의 열심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불꽃을 옮기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칼을 드는 힘이 선교에 자신을 드리는 힘이 된 것입니다. 유대 민족만 사랑하는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시몬이 열심당원의 전사에서 이제 다락방의 기도자, 전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가졌던 열정은 누군가를 죽이는 열심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된 것입니다. 여러 전승에 의하면, 그는 에티오피아, 이집트, 페르시아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열정이 하나님 나라의 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의 열심으로 변화되어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 비판이론은 성경적일까?

대화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돌보시니까, 기독교인은 비판이론도 받아들여야 해. 그것도 억압을 없애려는 거잖아”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비판이론에서 억압받는 정도가 도덕적 권위 수준을 결정한다. 더 많은 억압받는 범주에 해당할수록 더 큰 도덕적 권위를 가진다. 그 결과, 동성애자 혹은 여성의 경험과 관점은 이성애자 백인 남성의 경험과 관점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느냐와 상관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더 억압받을수록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더 적다고 본다. 억압받는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즉 이성애자 백인 남성은 도덕적 권위를 가진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양보함으로써 도덕적 권위를 얻는다. 이것을 ‘각성(woke) 상태’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억압받는 자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비판이론과 교차성이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비판이론과 교차성이론은 기독교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비판이론은 기독교와 다른 인간관을 제시한다. 비판이론은 인간의 정체성이 인종과 성별 같은 요소에 뿌리를 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정체성과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비판이론이 억압하는 계층과 억압받는 계층의 지위를 기준으로 어떤 집단을 다른 집단과 대립시키는 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동일하게 창조되었고, 동일하게 가치가 있으며, 동일하게 죄가 있고,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 마땅하며,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비판이론은 기독교와 다른 죄를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성경은 죄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를 어기는 모든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비판이론은 죄를 오직 억압으로만 규정한다. 그 결과 비판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

은 제자 훈련, 권면, 지도력, 책망 같은 성경적 실천과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억압하는 집단에 속해 있다면 그 자체를 죄악스러운 권력 행사로 본다. 반대로 억압받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분노, 질투, 증오, 쓴 뿌리, 무자비 등과 같은 죄는 정당화하거나 눈감게 된다. 성경은 사회적 지위, 인종,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억압을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로 정죄한다. 억압만이 반역의 유일한 방식이 아니다. 비판이론이 이처럼 인간의 문제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해결책도 잘못 제시하게 된다.

셋째, 비판이론은 기독교와 다른 구원관을 제시한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죄인이므로 구원은 오직 회개를 통해 예수 안에서만 발견된다. 우리의 소망은 죄의 용서를 받는 데 있다. 그러나 비판이론은 억압하는 사람만 죄가 있고, 억압받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억압받는 사람의 구원은

회개나 회개회개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사회적 해방에 있다. 다시 말해 비판이론은 우리가 누구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기독교와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님도 억압받는 사람을 돌보셨으니 기독교인은 비판이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비판이론은 성경과는 다른 인간관을 제시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인종, 성별, 소득, 이민 신분이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에 있다.”

“비판이론은 죄에 대해 성경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억압은 잘못이지만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다.”

“비판이론은 성경과는 다른 구원관을 제시한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예수만이 해결하신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환경이 아니라 영원의 운명에 있다.”



원문 영상 QR

##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상상력

## 세례받은 상상력과 거룩한 통찰의 시선

이종우 장로  
(성북공동체)

〈판타스틱스〉를 읽고 “상상력의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한 C. 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을 떠올려 본다. 그는 세례받은 상상력을 통해 욕망으로 왜곡된 탐미적인 기쁨과 갈망을 넘어 지극히 평범한 일상과 현상 속에서 새

로운 의미를 포착해 낸다. 일상의 사물 속에 비치는 진리의 빛은 세례받은 상상력을 거치면서 사물과 현상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 내재한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낸다. 특히 세례받은 상상력은 우리가 실제(實在)와 만날 때 실재를 단순한 분석적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한 살아있는 존재로 대면하게 한다. 이 대면의 순간은 예측할 수 있는 이성을 통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기치 않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상상력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상상력은 이성과 더불어 진리를 변증하는 중요한 인식 능력이다. 그런데도 서양 사상사에서 상상력은 그 이해의 출발점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실체와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공상이나 허상을 불러일으키는 열등한 정신 작용쯤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상력은 궁극적으로 실재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하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보면 상상력은 실재를 단순하게 모방해서 허위를 재생산하는

것을 넘어 이미지 속에 깃든 실재의 본질을 예리하게 포착해서 구현해 낸다. 이미지를 헛된 ‘우상’이 아니라 참된 ‘형상’이 되게 하는 상상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실재와 이미지를 분리하지 않고, 이성으로 대변되는 진리나 말씀을 이미지 형태로 완벽하게 체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 상상력의 가장 성스럽고 숭고한 형태가 바로 성육신이다. 상상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이성과 함께 기독교를 변증하는 핵심 매개체가 되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상상력은 실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마음의 통로다. ‘실재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세계관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실재가 본질인지 현실인지, 혹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거듭된다. 그러나 이 모든 사유를 관통하고 종결하는 궁극적 실재는 하나님이다. 상상력은 타락한 지성이 만들어낸 실재에 대한 다양한 왜곡된 관념을 뚫고 들어가 궁극적 실재를 정확하게 이해할 가능성을 높인다. 상상력은 타락 이전의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졌던 직관적 인식 방법을 반영한다.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가슴이 있으나 느끼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게 하는 힘이 바로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실재의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를 최대화하면서도 그 본질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포착한다. 특히 상상력은 신적 계시를 수용하는 탁월한 역량으로 이성이 미처 다다르지 못한 지점에서 진리를 맞보게 하는 선구적 역할을 감당한다.

상상력은 ‘창조-타락-구속’이라는 메타내

러티브(거대 서사)를 모방하고 재현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모방과 재현은 본성이자 정체성이다. 세례받은 상상력은 자기 중심적 욕망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바로 그 이야기를 본받아 현실에서 재현한다. 인간은 이야기 속에 던져진 존재로, A. 매킨타이어가 지적하듯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느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완성된 텍스트 안에 올바르게 존재할 때 그분이 부여하는 저자의 위치를 확보하고, 동시에 지혜로운 독자로서의 통찰까지 얻는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창조), 무엇이 잘못되었으며(타락), 어떻게 회복되어(구속), 어디로 향하는지(완성)’라는 거대한 구속 서사에 동참할 때 비로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상상력은 우리의 개인적인 작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의 흐름에 맞춰 정렬하고, 삶과 세계를 해석하며, 새롭게 써 내려가게 하는 아름다운 동력이다.

더불어 상상력은 관계론적 사유와 통찰을 지향한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적 질서 안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 상상력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웃, 자신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이끈다. 관계적 인식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왜’라는 목적론적 질문과 ‘어떻게’라는 현실론적 질문이 함께 제기되고 규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왜’라는 목적과 본질을 강조하기보다 ‘어떻게’라는 기능과 효율 중심의 접근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그 결과 인격화해야 할 상대를 도구적 대상 내지는 사물로 전락시킨다. 상상력은

기계적인 이성 중심적 사유를 뛰어넘어 개체와 전체 간의 통합적 인식을 복원하며, 각 존재가 지닌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온전하게 드러내 준다. 특히 세례받은 상상력은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지 않은 채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게 한다. 모든 존재를 유기적 관계 속에서 사랑과 공감의 눈으로 품어내는 거룩한 인식 능력이다.

세례받은 상상력과 ‘창조자의 정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작동한다는 점에서 서로 맞닿아 있다. 이러한 상상력은 창조의 원형적 틀인 ‘아이디어, 에너지, 효력’이라는 삼위일체적 창조 작업을 역동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다. 효율성과 데이터가 편만한 디지털 AI 시대에 세례받은 상상력은 유물론적인 기계적 환원주의를 극복하고, 생명과 영혼이 깃든 거룩한 창조 행위를 지켜내는 강력한 동력이다.

세례받은 상상력은 회심의 은혜로 타락한 시선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내면의 거룩한 영적 눈이다. 일상에서 나를 비우고 거룩함을 쫓을 때, 영적인 눈은 우리 내면의 깊은 지성소에 가닿는다. “당신은 내 안의 가장 깊은 곳보다 더 깊이 계셨고, 나의 가장 높은 곳보다 더 높이 계셨나이다”라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울려 퍼진다. 세례받은 상상력은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계신 내재적 하나님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초월적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하는 통로다. 이 신비로운 만남 속에 만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세례받은 상상력의 경이로운 힘과 충만이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의 시각

# 중동 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해석

미국-이란 전쟁이 계속되면서 유튜브 등에 ‘〈에스겔〉 37~39장의 예언이 실현된다’는 콘텐츠가 꽤 올라왔다. 흥미진진하지만 과연 맞는 내용일까?

〈에스겔〉 37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로 있다가 하나님의 생기(루아흐)를 받아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 뒤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적혀 있다. 이는 곧 AD 70년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2천 년 동안 세상을 유랑하던 유대인들이 1948년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것을 예언했다는 설명이다. 또 〈에스겔〉 38장을 보면 ‘북방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인 곱’이 군대를 모은 뒤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 고멜과 먼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적혀 있다. 고대 지명이라 알기 어렵지만, 이란(페르시아)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일부에선 발음의 유사성을 들어 로스(Rosh)는 러시아, 메섹(Meshech)은 모스크바라고 주장하지만, 반론이 많은 해석이다.

1981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이끌 곱이 북방에서 나온다고 〈에스겔〉 38장은 말한다. 이스라엘 북쪽에 러시아만큼 강력한 다른 나라가 어디 있나. 러시아는 곱이다”라고 말했다. 때마침 1979년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벌어지고 러시아와 이란이 친해지면서 이 발언은 더욱 주목받았었다.

보통 예언서를 해석하는 신학적 흐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개혁주의(Reformed Theology)’ 식 해석이다. 〈에스겔〉은 환상, 비유, 상징이 많이 등장하는 묵시문학이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성도와 악의 세력 간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말았던 사명은 신약의 ‘교회’가 이어받았다고 한다.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는 “성경 예언은 언

제 뭐가 일어나는 걸 맞추는 게 아니다. 유대인은 더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민족이 아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승계하거나 대체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은 그냥 우연히 벌어진 정치적 사건일 뿐이다”라고 외친다.

반면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 식 해석은 다르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중동 정세와 성경 말씀이 연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대주의는 19세기 영국의 존 대비가 주창했다. 하나님은 세대에 따라 경륜을 달리하시는데, 골자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해서 다루신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세대주의 신학자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1967년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1979년 이스라엘과 친하던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 서로 원수가 된 것은 예언의 성취다. 그 이전에는 〈에스겔〉 37~39장을 영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교회는 휴거되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다가올 천년왕국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세대주의는 미국으로 건너가 20세기 초 무디 주석성경을 통해 히트를 쳤으며,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를 중심으로 지금도 상당수 성도를 두고 있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도 대부분 세대주의자였다. 하지만 근래 이단에 속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상당수가 세대주의를 즐겨 인용하는 바람에 개혁주의 신학계에서는 세대주의를 매우 경계하고 있다.

교회가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도와야 한다는 ‘기독교 시온주의(Christian Zionism)’도 중동 이슈와 관계가 깊다. 500년 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유대인들을 성경의 예언대로 고향으로 귀환시킨 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자’는 회복주의 이념을 공유한 것이 시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졌고 예루살렘은 이

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는 〈누가복음〉 21장 24절은 그들이 애호하는 성경 구절이다.

흔히 “미국은 왜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냐”라고 물으면, 미국 내 막강한 유대인 파워와 로비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면 본질을 놓친다. 미국 유대인 중 70% 이상은 선거 때마다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인보다 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미국인들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들이 바로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 참모들도 거기에 속한다.

결국, 오늘날 중동 분쟁의 가장 큰 뿌리는 1948년 5월 14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데 있다. 이를 성경 예언의 성취로 보든, 우연한 정치적 사건으로 보든 해석은 자유다. 하지만 유대민족을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9~11장에서 하나님이 원래 택하셨던 유대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총명한 숫자가 차기까지 그들을 우둔하게 했다가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다고 밝혔다.

지금 이스라엘은 인구의 15% 정도인 초정통파 유대교인들(하레딤)과 20% 안팎인 온건파 유대교인들을 제외하면 아예 종교에 관심이 없다. 무신론자도 많고, 텔아비브는 세계 최고 동성애 센터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주는 1%도 안 되는 비참한 상황이다.

그래서 은누리교회는 초창기부터 이스라엘 선교에 남다른 관심을 쏟고 있고, ‘살롬 이스라엘’이라는 선교 조직도 운영하고 있다.故 하용조 목사님은 설교에서 “마귀는 우리들의 눈을 가려서 이스라엘을 여느 나라와 같은 나라로 보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하셨다. 이어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셨다. 그래

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다. 그렇다면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이재훈 목사의 〈로마서〉 9~11장 강해도 주목해야 한다.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재훈 목사의 로마서 강의’ 중에서 17~20편 보기를 권한다.

중동에서 또 다른 과제는 이슬람권 선교다. 크리스천들은 중동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파야 한다. 복음이 시작된 곳이지만, 복음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중동 땅에서는 지금 이슬람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만 들린다. 다만 최근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꿈과 환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했다는 무슬림이 많은 점도 특이하다. 이들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MB B: Muslim-Background Believer)’을 잘 지켜주는 일이 시급하다.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교회 탄압이 심해지자 오히려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났다. 그물망처럼 연결된 지하교회들이 생겼고, 현재 100만 명 이상이 MBB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3일은 이스라엘 ‘부림절(Purim)’이었다. 부림절은 페르시아(이란) 총리대신 하만에게 학살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이 에스더의 지혜로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이다. 중동에서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제2의 부림절’을 만들고 화해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꿈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동을 어떻게 이끄실지,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한다. 그저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다(끝).



최홍섭 성도 (이촌공동체, 〈이스라엘과 그 적들〉 저자)

## 이란 선교사가 보낸 편지

#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살롬. 이란 테헤란에서 사역하는 B, 조수아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2월 20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테헤란으로 복귀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 상황에서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 염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란 내 시위대 학살 사건 이후 현지 친구들이 저희가 빨리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요청했기에 가족 모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평안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 있었는데 아내의 전화를 받고 미국의 이란 공격 소식을 접했습니다. 테헤란 곳곳에서 미국의 폭격이 이어졌고, 다행히 첫날은 저희 거주지까지 피해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일요일 오후) 상황은 달랐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이란 혁명수

비대 본부가 폭격을 당했고, 주변 건물들마저 형체 없이 사라지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국, 저희는 현지 사역자와 동업자들과 급히 작별 인사를 나누고,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몸을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새벽에 버스에 올라 무려 14시간을 달려 이란 제2 도시인 마슈하드로 이동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머문 다음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 여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24시간 내 출국하는 항공권을 요구했기에 저희는 지인들이 많은 두바이로 향하기로 하고 급히 발권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두바이 역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

로 피해를 당하고 영공이 폐쇄되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다급해진 저희는 목적지를 이스탄불로 바꾸고, 이스탄불 YWAM에 연락해 거처를 수소문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처음 계획했던 ‘한 달 정도 피신 후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스탄불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권은 이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폭등한 상태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던 그때,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생님과 극적으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지난주 일

요일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직도 중동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하루속히 마무리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현지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픈 전쟁의 시간이 지나고, 이란에 진정한 영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 여파로 주변 국가에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은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B, 조수아 선교사(이란 테헤란)

##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 엄학실 성도가 압록강 건너 예수 따르기까지

“나를 따르라”(마 16:24).

2026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전제한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이다. 2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을 향하기 때문이다.

〈온누리신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난다.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뜨겁게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과 고백을 듣는다. 그 네 번째 주인공은 엄학실 성도(부천한사랑공동체)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제가 배운 역사 교과서 속 미국 선교사들은 ‘하느님을 전한다면서 사과를 훔쳐먹어 이마에 도적이자 새긴 자들’이었습니다.”

엄학실 성도에게 하나님은 첫인상이 아주 나빴다.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고, 선교사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두메산골에서 자란 엄학실 성도에게 신이라는 개념은 삶의 영역 밖에 있었다. 국가가 곧 절대였고, 김일성 일가는 신을 넘어선 존재로 교육받았다. 김일성 일가의 이상화를 담은 〈혁명역사도록〉을 줄줄 외우며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스쳐 지나는 왜곡된 이야기 속 인물, 나쁜 사람으로만 남아 있었다.

엄학실 성도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끔찍한 경험이 있었다. 2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던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삶의 방향을 잃었다.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막막함뿐이었습니다. 손주들 밥을 축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차피 죽을 거라면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심은 곧 국경을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졌다. 압록강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엄학실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을 찾았다.

“3월의 압록강은 녹지 않은 얼음과 불어난 물로 가슴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느님, 하느님, 내가 압록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드린 저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압록강에 다다른 그녀의 눈앞에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강 위로 쓰러져 다리처럼 놓여 있었다. 그 덕분에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 그 한 구절이 나를...

중국에서의 삶 역시 쉽지 않았다. 공안의 단속을 피해 더 깊은 곳으로 몸을 옮겨야 했다. 이전보다 형편은 조금 나아졌지만, 불안은 여전히 있었다. 함께 중국으로 건너온 딸은 가사도우



고난을 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엄학실 성도.

미, 엄학실 성도는 농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마음 한편에는 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때마다 엄학실 성도의 입술에서 다시 같은 이름이 흘러나왔다.

“하느님, 우리 딸과 손자가 공안에 잡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게 해 주십시오”

그때도 여전히 그것이 기도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다만, 절박한 순간마다 무심코 부르게 되는 이름이었다.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딸이 한국으로 떠나자고 제안했다. 점점 자라는 손자를 위한 선택이었다. 선택을 내지 못했는데, 그날 밤 꿈이 엄학실 성도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미 중국으로 도망쳐온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나려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너희가 먼저 가서 좋으면 나를 데리러 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꿔했습니다. 넓고 길고 곧은 길 위에 큰 개 세 마리가 죽어있는 꿈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에 나온 개가 경찰을 뜻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아, 안전하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딸에게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터에 거짓말하고 나온 딸과 손자와 함께 밤 11시에 창문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엄학실 성도는 여러 경로와 재판을 거쳐 한국대사관 방콕 수용소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난생처음 성경책을 봤다.

“방콕 수용소에는 한국 영화와 책 그리고 성경책 등이 있었습니다. 문득 ‘북한은 왜 그렇게 성경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핍박했을까?’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일하려고 국경을 넘나들던 시절 성경책을 겹옷에 숨겼다가 공안에 붙잡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성경책이 무엇 이길래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호기심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성경 읽기가 곧 ‘통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대부분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다. 단 한 구절이 마음에 남았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7).

이 한 구절이 엄학실 성도의 마음을 붙잡았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심하게 했다.

##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엄학실 성도는 하나원에서 만난 동기에게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부

탁했다. 그렇게 인도받은 곳이 부천온누리교회 한사랑공동체다. 그곳에서 엄학실 성도의 신앙이 비로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과 사랑이 그녀를 감쌌고, 김혜경 목사와 한사랑공동체의 돌봄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조금씩 생겼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마다 하나님께 말을 걸었고, 새벽과 밤을 기도로 채웠다. 그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다.

“평소처럼 새벽에 혼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머릿속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확인해 봤더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명령이라고 느꼈습니다. 연약한 저는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엄학실 성도에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삶,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이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이 그녀가 이해하는 예수 제자의 모습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뜯만 밟듯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놓고,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상이 곧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엄학실 성도는 복음 통일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남아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을 만나고,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통일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도록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훈련받으며, 준비해야 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복음, 공산주의는 가짜 복음

##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길에서 방황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따뜻한 심리학》 저자)

“초기 교회도 재산을 공유했잖아요. 그럼, 공산주의와 뭐가 다른 거죠?”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겉보기엔 공산주의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당신의 마음도 안다. 불평등한 세상을 보며 가슴이 아프다. 재벌은 탈세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현실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는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다른 하나는 강제에서 시작되었다.

핵심은 ‘왜 나누는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켜서 나누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나누었다. 야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진다. 베드로는 “빵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빵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행 5:4a)라고 말한다. 즉, 나누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었다. 반면 공산주의는 어떤가? 국가 권력이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 분배한다. 개인의 선택권이 없다. 거부하면 처벌받는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명확하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 세 가지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있다고 말한다.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이다. 공산주의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더 흥미로운 건 ‘과잉 정당화 효과’다. 원래 즐겁게 하던 일에 외부 보상이나 처벌을 연결하면 오히려 그 일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 공산주의는 ‘일하면 배급을 주고, 안 하면 처벌한다’는 시스템이다. 이건 인간의 내재적 동기를 완전히 파괴한다.

역사가 이걸 증명한다. 소련의 집단농장을 생각해 보라.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다. 왜일까? 자기 땅이 아니니 열심히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체 땅의 3%에 불과한



**“초대교회의 나눔과 공산주의를 혼동하지 말라.**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다.**

**하나는 자유고, 다른 하나는 억압이다.**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를 우상화한다.**

**하나는 복음의 열매고, 다른 하나는 복음의 부정이다.”**

개인 텃밭에서는 소련 전체 농산물의 25~30%가 생산되었다. 땅만 ‘내 것’이라고 느끼면 8~10배 더 열심히 일한 것이다. 결국 1932~1933년 대기근으로 약 6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념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인간 본성을 무시한 대가였다.

공산주의는 당신에게 “우리가 해결해 줄게. 국가에 모든 걸 맡겨.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줄게”라고 속삭인다. 들어본 적 있는 말 아닌가? 맞다. 이건 뱀이 하와에게 한 말과 똑같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창 3:5a).

심리학자들은 이를 ‘권력 역설’이라고 부른다. 권력을 얻기 전에는 공감 능력이 높던 사람도, 권력을 얻고 나면 점차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총동적으로 되며 타인의 관점을 무시하게 된다. 권력 자체가 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역사를 보라. 스탈린은 2000만 명을 죽였다. 마오쩌둥은 4500만 명을 굶겨 죽였다. 김일성은 3대째 노예 국가를 만들었다. 모두 ‘인민을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서 말이다. 성경은 이미 경고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마 20:25a).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공산주의는 이 견제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더 심각한 건 영적인 문제다. 공산주의는 국가를 절대화한다. 국가가 모든 걸 주고, 모든 걸 결정하며, 모든 걸 책임진다. 이건 사실상 국가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성경은 명확하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출 20:3).

북한을 보라. 김일성을 ‘아버지 수령님’이라 부르고, 그의 동상에 절하게 한다. 이게 공산주

의가 극단으로 가면 나타나는 모습이다. 공산주의는 “우리가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지만, 매년 지옥을 만들었다. 왜일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짜 갈망하는 건 평등한 배급이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존엄성이고, 자유고, 의미고,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공산주의는 “너는 프롤레타리아야”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너는 내 자녀야”라고 말씀하신다. 공산주의는 “모두가 똑같아”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너는 독특하고 귀한 존재야”라고 말씀하신다.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만들겠다는 사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가 온다고 믿는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건 곧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진짜 크리스천은 세상의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싸운다. 하지만 방법이 다르다. 월버포스는 혁명 없이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테레사 수녀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수백만 명을 도왔다. 마틴 루터 킹은 폭력 없이 인종차별과 싸웠다. 이게 그리스도의 방식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당신의 시간을 나눠라. 소속자 급식소에 가서 밥을 퍼 보라. 공산주의자들이 회의실에서 토론할 때, 당신은 현장에서 실제로 섬겨라. 당신의 재능을 나눠라. 코딩을 할 줄 아는가? 비영리단체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라. 음악을 할 줄 아는가? 요양원에 가서 연주해 주라. 당신의 돈을 나눠라.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으로 아프리카 아이 하나를 한 달 동

안 먹일 수 있다. 국가가 빼앗기 전에, 당신이 먼저 기쁘게 드려라. 당신의 목소리를 나눠라. “저 재벌 망해라”가 아니라 “우리 동네 이 가족을 도우시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살다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가 필요 없다는 것을.

### 두 가지 길, 국가 혹은 권력자 vs 그리스도

여러분의 선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 길은 국가에 모든 걸 맡기고, 강제로 평등을 만들고, 권력자들이 공정하게 분배해 주기를 기대하는 길이다. 역사상 이 길을 간 모든 나라가 실패했다. 두 번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기쁘게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는 길이다. 느리지만 확실하다. 힘들지만 보람 있다. 작아 보이지만 영원하다. 초대교회의 나눔과 공산주의를 혼동하지 말라.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다. 하나는 자유고, 다른 하나는 억압이다.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를 우상화한다. 하나는 복음의 열매고, 다른 하나는 복음의 부정이다.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분노하는 당신의 마음은 정당하다. 그 분노를 잃지 말라. 하지만 그 분노를 올바른 곳에 써라. 공산주의의 영터리 논리에 속지 말라. 그들은 평등을 약속하지만, 노예를 만든다. 정의를 외치지만, 학살을 저지른다. 자유를 말하지만, 감옥을 짓는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라.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누는 사람이 돼라. 이게 더 어렵다. 이게 더 느리다. 이게 더 희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게 유일하게 진짜 작동하는 방법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4-16).

혁명이 아니라 빛이 돼라. 투사가 아니라 소금이 돼라. 이념가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돼라. 외형이 비슷해 보인다고 본질까지 같은 건 아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후 11:14). 공산주의라는 포장된 상자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안에는 독이 들어 있다. 일어나라. 영터리에 속지 말고, 진짜를 붙잡아라. 공산주의라는 가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복음을 붙잡아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제대로 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라.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 8:32).

맛있는 말씀 해설

#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2절과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자신을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로 비유하셨다. 그리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물으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마 18:12).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눅 15:4).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은 물음표라기보다는 느낌표에 가깝다. 우리의 의견을 묻는다고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당부의 말이기 때문이다. 양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생명에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

<양과 목자>의 저자 필립 켈러는 수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일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마음을 실감 나게 묘사했다. 저자는 양의 수가 한두 마리 모자랄 때면 가장 먼저 '내 양 중 한 마리가 어딘가에 뒤집혀 있겠구나. 빨리 찾아 일으켜 주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스친다고 고백한다.

필립 켈러의 '뒤집힌 양'에 대한 묘사는 매

리에 가만히 누워 있게 된다. 만일 목자가 빠른 시간 안에 그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양은 심중팔구 죽게 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뒤집힌 양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네 발을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는데 버둥거리는 동안 양의 후위(뒤새김질 동물의 첫 번째 위) 속에 가스가 차 오르기 시작한다. 가스가 차오르면 몸의 말단, 특히 사지부터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

로 죽기 쉽다. 이 사실을 아는 목자에게 길 잃은 양의 문제는 무엇보다 급하다. 목자는 최우선 순위로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게 된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과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성경의 비유에는 이처럼 생명을 놓고 벌어지는 시간적 긴박함에 대한 자각이 담겨 있다. 바로 그 시간적 긴박감에서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의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고, 마침내 찾아낸 양을 데리고 돌아올 때의 무한한 기쁨이 생긴다.

예수님은 자신을 잃은 양을 서둘러 찾아 나서시는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시간에 대한 긴박함을 품을 것을 권면하셨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라고 드렸던 우리의 고백이 길 잃은 한 영혼을 향한 긴박한 마음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박철웅 목사 (강남B공동체)

##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라고 드렸던

### 우리의 고백이 길 잃은 한 영혼을 향한 긴박한 마음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우 구체적이다. 뒤집힌 양은 등이 땅에 닿고 네 발이 허공을 향한 채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버둥거리지만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처음에는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메에”하고 소리 내어 울어보지만, 무리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그 울음소리는 오히려 맹수의 표적이 된다. 결국, 양은 두려움과 좌절감 속에서 심하게 발버둥 치다가 지쳐 그자

게 되다가 순환이 멎어버리게 된다. 날씨가 덥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릴 때에는 뒤집힌 양이 몇 시간 내에 죽을 수도 있다. 독수리와 들개, 이리, 표범 같은 맹수들에게 뒤집힌 양은 쉽게 사냥할 수 있는 먹잇감일 뿐 아니라 얼마 안 있어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표적으로 삼고 주시한다. 이처럼 길을 잃은 양은 뒤집혀 무력해진 채 죽거나 맹수의 공격으

## 오늘의 힘(Hymn)

찬송가, 찬가

###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새찬송가 149장(통 147장)

이 찬송의 원제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서 'Survey'라는 단어는 단순히 훑어보는 것이 아니다. 토지를 정밀하게 측량하듯 십자가의 높이와 깊이, 넓이를 꼼꼼히 살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남보다 앞서가는 것을 '복'이라 여긴다. 그러나 십자가를 정밀하게 측량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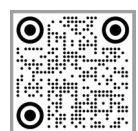
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익들이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변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라는 고백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다. 십자가라는 거대한 영광을 목격한 자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우선순위의 변화다. 우리의 손이 꼭 쥐고 있는 '세상의 보배'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찬란한 빛 아래에서 그것들의 참모습을 다시 바라보기를 기도한다.

이 찬양 가사 중에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라는 고백은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 '나 자신'임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자에게 적당한 헌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모두를 요구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한다.

찬양 '주 달려 죽은 십자가'는 QR코드,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찬양 듣기

### 예수님의 채찍 자국 위에



<그가 찔림은>  
리드워십퍼 ver

찬양 '그가 찔림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속적 사랑'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이 곡의 가사는 '그'와 '우리'를 끊임없이 교차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것의 원인이 철저히 '나'에게 있음을 드러낸다.

목상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2천년 전 골고다의 사건이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구체적인 죄와 허물 때문에

일어난 '현재적 사건'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할 때 비로소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가 단지 예수님의 고통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평화와 나눔으로 주어졌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나움'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선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의 회복, 내면의 찢긴 상처와 정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회복을 뜻한다.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의 채찍 자국 위에 포개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한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질고를 지셨다.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다면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한다.

찬양 '그가 찔림은'은 QR코드,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찬양 듣기

##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 경기A공동체와 나라를 위하여!

경기A공동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맡기신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만 따르는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해서 서로를 세우고 치유하는 경기A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들이 영적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자녀들에게 창조 신앙과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전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세대가 세상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순장에게 성령의 기쁨 부으심을 더해 주시고, 순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나눔 속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경기A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며,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경기A공동체 성도들

이슈(Issue) 바로보기!

# 만삭 낙태는 살인이다!

성인 입원환자를 회진할 때 전공의들은 “본 35세 여자환자는...”이라고 나이부터 보고를 시작한다. 반면 신생아 집중치료실 회진에서는 “본 생후 3시간 된 출생체중 1,200gm 환자는...”라며 보고를 시작한다. 출생 이후 신생아는 나이를 시간으로 보고한다. 평생 신생아 진료를 하다 보면 나이를 시간이나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체질화된다.

오랜 의사 생활 탓인지 양력 나이보다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음력 나이가 어색했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께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설교 말씀을 하셨다.

“음력 나이는 우리 선조들의 생명 존중 사상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태하는 순간부터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열 달 동안 나이를 먹어 출생 시에 이미 한 살이 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음력 나이를 비과학적이고, 하루빨리 없애져야 할 구시대적 유물로 취급하던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전통 같은 말씀이었다.

‘낙태권’이란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낙태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낙태권이 여성의 권리라는 근거는 ‘자기결정권’, 즉 태아를 ‘자기’라고 보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 이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말이다.

태아는 완전한 ‘자기’라기보다 어찌 보면 ‘남’일 수도 있다. 태아 염색체의 절반은 여성의 난자에서 오지만 다른 절반의 염색체는 남성의 정자에서 오기 때문이다. 태아는 자력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의 자궁에서 열 달 동안 셋방살이를 하는 셈이다. 자궁의 주인과는 별개의 생명체다. 만약 태아가 ‘자기’라면 왜 여자아이만 태어나지 않고 남자아이도 태어나는가? 맹장염이 걸리면 맹장은 ‘자기’이기 때문에 잘라내도 된다. 태아는 절반만 ‘자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잘라 낼 수도 없고, 잘라내서도 안 된다. 태아는 맹장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를 수 없는 엄연한 다른 생명체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창 1:28). 생육, 번성, 충만은 권유가 아니고 명령이다. 하나님은 장차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

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끌고 나와 시청각 교육을 시키셨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창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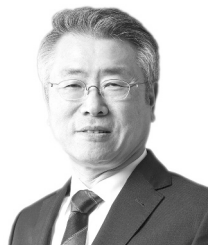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약시대에 시청각 교육까지 동원하시면서 생육과 번성을 약속 하셨다. 하나님은 이성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다. 성행위의 쾌락은 이차적이고 부수적인 일이다.

요사이 성교육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다. 성행위를 쾌락 위주로 가르치며 자위, 피임, 동성에 교육 등에 집중하고 있다. 성행위는 임신을 목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생육과 번성을 위한 숭고한 생명 탄생의 행위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임신이 성행위의 부수적 결과가 되고, 일순간의 육체적 쾌락이 목적이 되어 버렸다. 성교육에서는 성행위가 쾌락보다는 임신과 분만을 통해 인간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룩한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

장 먼저 소멸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낙태 역시 대한민국 소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약 2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낙태가 출생 신생아 수만큼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학회의 의학적 기준이 엇나는 하다. 그러나 낙태 허용 임신 주수 하루 전의 태아는 생명체가 아니고, 하루만 지나면 생명체가 되는 것인가? 이는 어불성설이다. 임신 6개월 전후의 극소 미숙아도 집중치료의 도움을 받아 엄마 품으로 돌아간다. 만삭인 임신 9-10개월에는 태아의 모든 장기가 이미 독립적으로 살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다. 최근 생명경시 사상이 만연하면서 만삭에도 낙태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만삭 낙태는 살인이다.



이철 장로 (OCC 공동체, 하나 로의료재단 명예 원장, 전 연세의료원장)

OLF(온누리법조인모임) 칼럼

# 종교의 자유를 옥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올해 7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발의 후 불과 두 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절차도 이례적이지만, 내용도 ‘슈퍼 입찰법’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비록 허위·조작 정보 차단과 차별·증오 유통 방지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온라인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편입하는 포괄적 표현 규제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를 ‘온라인 판 차별금지법’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다른 이름의 차별금지법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분명 기독교의 공적 발언 공간을 위협하는 새로운 골리앗이다. 차별·증오의 선동과 조장이 개념 자체로 ‘상대적, 가치적, 유통적’이고,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의 판정 기준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어디까지가 차별이고, 어디부터가 신분 표현인지는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결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다만, 법률 집행 또는 해석하는 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다.

특히 ‘제3의 성,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입장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 법사위에서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끝에 있던 ‘등’을 삭제했다고 안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차별금지사유인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예시적 열거로 해석해 온 전례에 비추어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까지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할 가능성이 있고, 아예 ‘성별’에 제3의 성을 포함하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성경적 비판이나 윤리적 판단까지도 차별·증오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만일 차별·증오 표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증명이 어려운 손해 5,0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해 주는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제3의 성과 동성애, 성전환 등을 반대 또는 비판하는 주장과 표현을 인터넷 기사, 유튜브,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제재를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법적제재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까지 직접 겨냥한다는 점이다.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유통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례 없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하고,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 경영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 및 허위·조작에 해당하는 동일 정보의 반복적 유통의 경우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온라인 발언 하나가 개인과 단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구조의 탄생을 의미한다.

더욱이,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운영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불법 정보 차단 의무를 부담한다. 민간 기업을 이용한 우회 검열 구조까지 만든 셈이다. 플랫폼이 선제적 방어 조치를 해 논란이 있는 콘텐츠를 미리 삭제할 가능성이 있고, 신념에 기초한 발언이 법적 판단 전에 온라인 공간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할 수 있다.

이렇듯 온라인 공론장이 토론 공간이 아니라 위협 공간으로 변질하는 순간, 종교적 양심의 영역도 법적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 설교 또는 전도 콘텐츠조차 자유로운 진리 선포가 아니라 공적으로 관리받는 표현으로 추락하고 만다. 만일 ‘성경적 비판을 담은 콘텐츠’를 대상으로 신고 또는 소송이라도 빚발치면 전국의 교회는 물론, 기독교를 표방하는 인플루언서, 단체, 방송 등은 당연히 활동의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단순한 온라인 규제

가 아니라, 혐오 규제를 명분으로 한 표현 통제 체계의 출발이다. 추상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로 법조문을 포장했더라도 법의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특정 가치관과 정책 방향이 스며들 수 있고, 권력 구조나 사회 분위기가 심심찮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요즘 사법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규제의 영향은 기독교인과 같이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집단에서부터 가시화되기 십상이다. 한국 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해석 및 판단이 ‘종교의 자유’를 옥죄는 일만은 최대한 막아야 하고, 디지털 전략과 정책 연구, 입법과 사법 모니터링, 차세대 교육, 국제 협력 등 중장기 대책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 사회는 2026년 7월 7일 이후 ‘신앙에 근거한 발언이 어

디까지 보호되는지, 그 허용 기준과 한계는 누가 설정하는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할 것이다. 이는 비단 종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 전체의 문제기도 하다.



이은경 변호사 (OCC공동체,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크레도 대표이사)

# “입양은 생명과 생명을 잇는 일”

### 제이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온누리교회 입양위탁가정모임 ‘제이흠’을 비롯한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등 입양 관련 14개 단체가 지난 3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인권 보호를 촉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적 입양체계가 가동됐다. 국가가 입양 실무를 전담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민간 입양 기관과 협업 없이 국가 단독으로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공적 입양체계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가정을 찾은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예비입양부모 585 가정과 입양대상 아동 276명이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입양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과



제이흠이 지난 3월 19일(목)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을 통해 공적 입양체계의 아동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아이들이 하루속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즉각적인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공적 입양체계 개선 촉구 서명’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5,499명이 동참했다. 홈페이지(www.kadoptio

n.com)에서 동참할 수 있다.

오창화 집사(제이흠,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입양은 생명과 생명을 잇는 일”이라며 “어렵게 지켜진 아이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며 자라도록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 허브대학부, 3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 3월 21일 토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허브대학부 3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3월 21일(토)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열렸다. 주제는 ‘캠퍼스, ‘Arise, Shine’이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Lost Origin,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워진 캠퍼스’, ‘Lost Passion, 캠퍼스 안에 만연해 있는 죄와 문화’, ‘Lost Direction,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주제로 허브대학부 청년들의 발표와 찬양, 기도회 등이 이어졌다.

정애진 자매(허브대학부)는 “이 기도회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은혜와 사랑의 통

로”라고 말했다.

4월 기도회 주제는 ‘문화, ‘교육’이다. 다음세대와 우리나라 교육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허브대학부는 매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다. 2024년 말 청년 10여 명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모든 영역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으로 성장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5512-8107

/ 남현영 수습기자

## CGN, ‘2026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 개최

### 3월 30일 월 오전 10시 경북 구미상모교회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이 ‘2026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실습편(이하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을 3월 30일(월) 오전 10시 경상북도 구미 상모교회에서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하단 QR코드로 하면 된다. 분야별 선착순 모집한다(음향 기초 15명, 응용 15명/라이브 영상&자막 10명/조명 10명). 회비는 5만 원(단체 3인 이상 신청하면 1인 4만 원).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는 교회 미디어 사역자와 봉사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가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고, 다양한 장비를 직접 체험하면서 전문가에게 일대일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에서는 음향 기초, 음향 응용, 라이브 영상&자막 분야를 다룬다. 어영민 대표(쿨미디어), 전주영 팀장(주식회사 다산에스알 음향기술연구소), 이한용 대표(교방닷컴), 윤주영 감독(예배인교회 방송실장)이 강의한다. 문의: 02-3275-9372 / 박지혜 기자



## 건강한 만남 Love & Marriage 스쿨 1기 모집

### 4월 3~24일 매주 금 오후 7시 행가래 비전센터

건강한 만남 ‘Love & Marriage(러브 & 매리지) 스쿨’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행가래 비전센터에서 진행된다. 5월 1일(금)에는 리트릿을 간다. 참가신청은 3월 23(월)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30만 원.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자 보호를 위한 검증 절차도 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 전화번호로 문의).

건강한 만남 Love & Marriage 스쿨은 하나님의 가정을 사모하는 미혼 청년들이 진솔한 만남을 갖고, 건강한 관계와 결혼을 준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추구하는 미혼 남녀가 대상이다.

문의: 010-3340-7039

010-5335-6437



/ 박지혜 기자

## 176기 서빙고 큐티스쿨 참가자 모집

### 4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 오후 8시

176기 서빙고 큐티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2일부터 23일까지 4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가 대상이다. 양성민 목사가 강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3월 30일(월)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 원. 문의: 010-7131-1284

/ 남현영 수습기자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팀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팀이 지난 3월 16일(월) 오후 5시 더멋진 세상 본부(서초구 정금빌딩)에서 ‘긴급구호팀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더멋진세상 긴급구호팀 리더십과 팀원, 본부 스태프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강찬욱 장로, 성광제 장로 사례 발표, 오정민 실장 본부 계획 공유, 팀 비전 나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광제 장로(더멋진세상 긴급구

호팀 담당장로)는 “긴급구호는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이라며 “열방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신속하게 전하는 긴급구호팀이 되도록 더욱 전문 역량을 키워가겠다”고 다짐했다.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팀은 담당장로 성광제 장로, 팀장 최성원 집사, 팀원 정봉선 총무, 오정민 실장, 이정혜 대리, 안광식 집사, 채현형제, 이기세 형제로 구성되어 있다.

/ 홍하영 기자

## 결혼비전스쿨 With 4U 3기 참가자 모집

### 4월 11~25일 매주 토 오전 11시

결혼비전스쿨 With 4U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남한산성 목상의집(1, 2주 차)과 여의도 이룸센터(3주 차)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4월 10일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커플당 20만 원(5만 원은 온사랑공동체 지원).

결혼비전스쿨 With 4U는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 또는 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하는 커플이 대상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가정과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디자인하는 커플 세미나다. 결혼비전스쿨 With 4U 3기는 양재온누리교회 젊은부부공동체 온사랑공동체가 주관한다. 문의: 010-4418-7978



## 본부 140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 3월 25일~4월 22일 매주 수 오전 10시 시온홀

본부 140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월 25일(수)까지 아이스쿨이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mother.or.kr)

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는 1주 차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2주 차 ‘아내의 사명’, 3주 차 ‘자녀양육’, 4주 차 ‘기도하는 어머니’, 5주 차 ‘십자가와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 박지혜 기자

## 헬로맘 임신 출산후 스쿨 참가자 모집

헬로맘 임신 출산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4월 17일(금)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헬로맘 임신 출산후 스쿨은 출산 전후과정에서 겪는 엄마들의 영적, 심리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박민정 팀장은 “헬로맘은 엄마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행복한 엄마로 성장하도록 돕는 모임”이라면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엄마를 헬로맘 임신·출산 후 스쿨에 초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10-5757-3427

## ‘헬로맘-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브런치타임2’ 모집

‘헬로맘-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브런치타임 2’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Zoom)과 대면 강의로 진행된다(온라인 오후 12시 30분, 대면 오후 1시까지, 5월 1일(금) 휴강).

헬로맘-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브런치타임 2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감미향 목사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4월 9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장애인의 달 특별전 '우리들의 찬양'이 5월 9일까지 사랑홀갤러리에서 진행된다.

## 사랑부, 장애인의 달 특별전 '우리들의 찬양'

### 장애인, 청년 작가 작품전시 5월 9일까지 서빙고 사랑홀갤러리

사랑부가 아주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애인의 달 특별전 '우리들의 찬양'이 지난 3월 14일(토) 서빙고 사랑홀갤러리(신관 1층)에서 막 올랐다. 5월 9일(토)까지 이어진다.

장애인의 달 특별전 '우리들의 찬양'에서는 온누리교회 사랑부 소속 청년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김수 자매(서빙고 사랑부), 김재원 형제(서빙고 사랑부), 박혜신 자

매(예수사랑부), 이지영 자매(강동 사랑부), 최희민 형제(양재 사랑부)가 참여한다.

서빙고 사랑홀갤러리는 온누리교회 소속 장애인 청년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이다. 2024년 12월부터 매월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장애인 청년 작가들을 발굴해서 전시회를 열어주고, 크리스천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을 돕고 있다. 사랑홀갤러리 전시

작품 판매로 장애인 청년 작가들의 자립도 돕고 있다. 전시 작품 판매금은 전액 작가에게 지급된다.

신수하 팀장(사랑홀갤러리)은 "장애인의 달 특별전 '우리들의 찬양'에서는 장애인 청년 작가들만의 시선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와 그들의 삶을 만나볼 수 있다"고 초대했다.

문의: 010-3128-2332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자립준비청년, 창조과학 배우다!

### 3월 28일 토 오후 3시 서빙고 두란노홀

사회선교본부 소속 고아사역팀 '푸른울타리'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전하는 특별 강의를 준비했다. 3월 28일(토) 오후 3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이재만 선교사(창조과학선교회)가 '창조과학'을 주제로 강의한다. 푸른울타리 봉사자, 자립준비청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푸른울타리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건강한 정체성 형성하고 자

립하도록 돕고 있다. 일대일 멘토링, 정기 모임(매월 4주차 토요일 오후), 중보기도 모임 등의 사역을 한다. 현재 멘토 및 봉사자 55여 명이 섬기고 있다. 올해 푸른울타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립준비청년은 44명이다.

오창화 팀장(온누리울타리)은 "자립준비청년들이 특별 강의에서 창조과학을 배우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문의: 010-6479-0885

/ 홍하영 기자



## 여성사역 사랑나눔팀, 예손 발달장애인 화가들과 특별한 식사

온누리교회 여성사역 사랑나눔팀이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소속 예손 발달장애인 화가들과 지난 3월 16일(월) 특별한 식사를 했다. 여성사역 사랑나눔팀이 예손 발달장애인 화가들을 예술리종각역점에 초대해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나눴다. 점심식사 후에는 생일을 맞은 예손 발달장애인 화가

들을 위한 깜짝 축하 자리도 마련했다.

정석윤 화가(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소속 예손발달장애인화가)는 "사랑나눔팀 권사님들이 선물도 주시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행복했다"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도 예손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박지혜 기자

## 메디엑세스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NGO 메디엑세스 아웃리치(BEE 팀, 마노아팀, 샬롬팀) 봉사자를 모집한다. 'BEE팀'은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치과, 피부과, 한방,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안과 진료를 하고, 고아원 검진과 어린이 캠프를 연다. 의료진(산부인과, 안과)과 어린이 사역, 의료 사역 봉사자를 기다린다.

'마노아팀'은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 람퐁과 자카르타에서 내과, 소아과,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고, 어린이·청소년 사

역 및 문화 사역을 한다. '샬롬팀'은 7월 중순 필리핀 보홀에서 내과, 소아과, 치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진료를 한다. 마노아팀, 샬롬팀 의료진을 모집한다.

메디엑세스 아웃리치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이메일(mediaccess@naver.com)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디엑세스 2026 아웃리치'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570-7110

/ 홍하영 기자

## '캠퍼스 미션콘퍼런스 in 평택' 개최

### 3월 22일 주일 오후 2시 평택 기쁨홀

'캠퍼스 미션콘퍼런스 in 평택'이 3월 22일(일) 오후 2시 평택온누리교회 신관 2층 기쁨홀에서 '새로운 선교의 바람'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설교, 주제강의, 평택 선교 현황 발표, 조별 나눔 등이 이어진다. 장광열 장로가 대표 기도하고, 신동식 목사가 설교한다.

주제강의는 김홍주 목사, 배행삼 목사, 김형일 집사, 정재호 집사가 한다. 선교현황 발표는 김선종 선교팀장이 한다. 캠퍼스 미션 콘퍼런스는 국내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캠퍼스 선교 사례와 아웃리치 성과 등을 보고하는 자리다.

/ 홍하영 기자

## 전태영 작가 초대전 '감추인 십자가'

온누리아트비전이 주최하는 전태영 작가 초대전 '감추인 십자가'가 4월 5일(일)까지 온누리아트갤러리(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카페 옆)에서 진행된다. 1관과 2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새사람을 입었으니',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등 작품 30점을 전시한다.

전태영 작가는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초대작가다. 제10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문의: 010-3128-2332

##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JDS홀과 충성홀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하단 QR코드 또는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가족당 15만 원이고,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와 그 부모다.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은 예배와 예술 매체를 활용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3710-9781



## 관계기술훈련학교 서빙고 토요일반 모집

### 4월 18일~6월 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 두란노홀

관계기술훈련학교 서빙고 토요일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월 29일(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관계기술훈련학교는 관계와 감정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보호자가 되는 기술을 훈련하는 프로그램

이다. 1주 '오리엔테이션-정상적인 두뇌로 다시 출발하기, 연결과 끊어짐, 샬롬 배우기', 2주 '감사-감사리스트, 4감사 이야기, 내 휴식 검토', 3주 '관계회로-떨어짐의 욕구 탐색, 관계회로, 좋은 기억 붙들기와 놓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3215-3532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 '태권도 선교 이야기' 특별 강의

### 3월 23일 월요일 오후 7시 서빙고 사랑홀

온누리교회 스포츠선교팀 특별 강의 '태권도 선교 이야기'가 3월 23일(월)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열린다. 김용기 선교사(세계스포츠선교회장, 태권도 공인 9단)가 강의한다. 스포츠 선교의 가능성과 비전 등을 나눌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010-8080-6967)로 신청하면 된다.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거나 지도하는 온누리교회 성도가 대상이다. 태권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8080-6967

/ 홍하영 기자

##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설명회

### 3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소극장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육하는 국제대안학교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Seoul Providence School)'에서 새 학년 설명회를 개최한다. 5~9학년 학부모가 대상이다.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교육

환경과 커리큘럼 등을 소개한다.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가을학기 원서는 4월 24일까지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홈페이지(seoulprovidence.org)에서 접수하면 된다(QR코드 참고).

문의: 02-792-0927



■ 온누리도서관 '독후감대회' 수상작



/ 남궁신아 성도(인천온누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만나면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나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꼭 알았으면 한다.” <예수님의 생애>를 따스한 아빠의 언어로 풀어낸 찰스 디킨스의 책 시작 문장이다. 첫 문장만 읽어도 저자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

작년 아이들과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보았다. 영화에 관심이 없던 큰아이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울먹이기 시작했다. 순간 놀랐지만, 성령님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서 등을 쓰다듬어 주며 기다렸다. 아이는 사랑들이 영화관을 다 나가자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함께 있던 나도 눈물이 났다. 그날 자기 전 큰아이가 다가와 말했다.

“엄마, 제가 운 이유는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서예요.”

눈물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 줄 수는 없었지만, 아이에게 성령님의 만지심임을 말해줬다. ‘평소에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품고 두란노에서 나온 책 <예수의 생애>를 구매했다. 그날의 사건을 아이가 책을 보고 간직하며 잘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던 어느 날, <온누리신문>에서 ‘온누리도서관 독후감

대회’가 열린다는 기사를 보았다. 신문을 보던 큰아이가 눈이 마주쳤다.

“올해 엄마는 꼭 독후감을 써볼 거야! 너희들도 함께하면 좋겠어.”

이 책은 예수님의 생애를 아이들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준다. 특히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따스한 말로 표현해서 참 좋았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큰아이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했다. 초등학교 6학년,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 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구세주 그분을 전하는 일에는 나이와 상황 등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마음을 주셨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면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사랑, 온유, 자비, 용서, 겸손 같은 예수님의 성품이 점차 보기 어려워지는 세대가 된 것 같다. 가끔 큰아이가 “엄마는 요즘 아이들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부모로서 더욱 간절히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만나게 하고 싶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가정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 간증



/ 김군하 성도(남양주온누리교회)

라엘이와 함께!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에게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은 신선했 그 자체였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이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등 체계적인 질문과 답을 듣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손녀들과 이 훈련을 꼭 함께하고 싶었다. 대단한 변화를 원했다기보다는 아이가 살아내야 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가장 빛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기를 소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나와 함께 훈련을 한 외손녀는 이제 6학년이 된 사랑스럽고 예쁜 하나님의 백성, 라엘이다. 양육자로서 던진 첫 질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였다. 라엘이는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야”라고 대답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고, 무척 대견했다.

하지만 방학 내내 아침 일찍 학원에 갔다가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와

시간을 맞춰 양육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혹여나 16주보다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큰 불평 없이 양육 시간표를 끝까지 마친 라엘이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라엘이가 전도의 의미를 알게 되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불교를 믿는 친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다가 마음이 조금 슬펐다는 이야기, 선생님께 교회에 나오라는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 오직 예수 신년 새벽기도회에서 받은 예수님과 열두 제자 카드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참으로 귀했다.

라엘이가 기쁨 때나 슬픔 때나 힘이 들 때 가장 먼저 예수님 이름을 떠올리기를 바란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아이, 하나님과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해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아이가 되기를 기도한다.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는 라엘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갈렙선교학교 봉사자 간증



/ 김순태 팀장(갈렙선교학교)

“하나님, 제가 갈렙입니다!”

“하나님, 제가 갈렙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80세에 가나안에 들어간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정복을 다시 떠난다. ‘하나님의 소명’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갈렙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가라!”, “Go!”라고 외치고 선포하신 그 용조 목사님의 부르심에 나는 선교지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곳이 너의 선교지다”라고 말씀하셨다. 선교지로 떠나는 것이 소명이란 여겼지만, ‘선교적 사명’으로 사는 삶이 있음을 4기 갈렙선교학교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윽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면, 나의 산지는 어디일까?’라는 물음이 이어졌고, 하나님은 나를 갈렙선교학교의 헬퍼(조장)로 인도하셨다.

갈렙선교학교는 2019년 60대 이후 갈렙들이 선교적 삶을 배우는 학교로 시작됐다.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이 가는 학교라는 인식이 젊은 이들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했다. 2020년 4기부터는 40대 이상 사람들이 모여 ‘젊은 갈렙학교’를 다시 열었다. 10기부터는 20대도 참여하는 학교가 되었다. 1년에 여름(7~8월)

과 겨울(1~2월) 두 번 열리는 갈렙선교학교는 “지금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말씀을 따라 8주 동안의 교육 과정을 거친다. 지난 15기까지 490명의 갈렙이 배출되었다. 특히 올해는 수원 갈렙선교학교 1기가 열렸고, 평택과 인천 등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갈렙선교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뚜렷하다. 첫째, 연령과 관계없이 젊은 세대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권면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적거나 많음이 중요하지 않다. 둘째, 갈렙들이 실천적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장소’ (산지)를 제공한다. 온누리교회에는 정말 많은 사역이 있다. 2000선교본부 사역만 해도 70여 개나 된다.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산지를 갈렙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적 삶은 계속된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제자로, 사명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갈렙으로, 헬퍼로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그 산지에 내가 가야 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이다.

“하나님, 제가 갈렙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간증



/ 임경영 성도(송파B공동체)

“가정을 지켜내고,  
섬기겠습니다”

지난해 7년 동안 몸담았던 예수제자학교(JDS) 간사직을 내려놓았다. 왠지 모를 허탈함에 조금 침울해 있던 내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두란노어머니학교 참석을 추천하셨다.

사실 예수제자학교(JDS) 섬김을 마치고 나서 하고 싶었던 1순위 스쿨이 두란노어머니학교여서 기대가 됐다. 그런데 막상 첫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괜찮았다. 나랑 코드가 안 맞네’라는 후회가 밀려왔다. 어색한 느낌과 자꾸 울리려고 하는 것 같은 작위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가고 싶었다.

그러나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철저한 섭리가 있었구나!’ 라는 고백이 흘러나왔다. 모태신앙인 우리 부부가 함께 세워가는 가정에 성도답지 못한 부끄러운 죄의 민낯이 드러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오직 예수 신년 새벽기도회까지 겹치면서 하나님이 내가 도망칠 곳 없게 하시고, 행복하게 했다. 갱년기 노예로 남편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부끄럼 없이 쏟아내고, 급기야 참을성 많은 남편에게 “당신하고 말하기 싫어”라는 일갈을 듣고야 만 내가 너무 부끄

러웠다. 하나님은 원가정에서 받은 상처의 쓴 뿌리를 아직도 붙들고 사는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셨다.

이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윤경희 향기님의 따스한 동행이 내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다. 조원들의 현숙함도 가르침이 됐다. 속제는 부담이 됐지만, 순종했더니 ‘다 이유 있는 거룩한 부담이었구나’를 깨달았다.

이 땅 최초의 공동체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저버리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영들이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해서 저들에게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섬길 것이다. 소중한 어머니의 귀한 역할을 잘 수행해 낼 것이다. 남편에게 전심으로 순종하며 지난날 나의 과오를 용서받고 싶다. 그가 진심으로 나를 용서해주기를 바란다. 남편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동하기를 소망한다.

이 세상에서 가족들과 이별할 날이 점점 다가올 텐데 그들이 나를 기억할 때 사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로 기억하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예배를 예배답게 세우는 '찬양 선곡'



강영재 장로  
(양천공동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기록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흐름 속에서 찬양은 결코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과연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찬양을 예배의 목적과 의미에 맞게 제대로 올려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찬양은 단순히 예배의 순서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룩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현재 교회음악에는 예배에 주로 사용되는 전통 찬송가를 비롯해 성가대의 성가곡, 대중적인 복음성가나 CCM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특히 복음성가나 CCM은 하나님이 주신 작곡의 달란트를 가진 크리스천 사역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곡들은 현대인들의 감성에 잘 맞고 은혜로운 멜로디를 품고 있어서 교회 안팎에서 성도들에게 널리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찬송가나 복음성가에는 각기 분명한 주제와 목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찬송가공회에서 발행한 찬송가의 제목 분류만 보더라도 예배, 성부, 성자, 성령, 성경, 교회, 성례, 천국, 구원,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와 선교, 행사와 절기 등 대분류가 명확하고, 그 밑에는 세밀한 소분류로 나뉘어 있다. 이처럼 정교한 분류 체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찬송가마다 고유한 쓰임새가 있으며, 예배의 흐름과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곡을 돕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는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과 권세를 온전히 높여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드러져야 마땅하다. 반면 예배의 끝 무렵이나 결단의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회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다짐이 담긴 곡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복음성가는 찬송가처럼 명시적인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서 예배 인도자가 선곡할 때 가사의 신학적 메시지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서 그 용도를 분별해야 하며, 성가대의 찬양곡 선곡 역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예배의 질서가 바로 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의 주보나 행사 순서지를 살펴보면, 원래의 주제와는 상관없이 멜로디가 아름답거나 가사가 감성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한때 유행처럼 번지는 인기 찬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배 맥락과 무관하게 곡을 고르는 경우가 흔하다. 제자후련, 성경공부, 성도 간의 교제 등 다양한 교회 내 모임에서도 각 행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선곡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아쉬운 점은 현재 불리는 곡 중에 나의 위로나 감정을 구하는 곡에 비해 순수하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적으로 찬양하는 경배 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작곡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이 점을 참작해 예배의 첫 문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롯이 선포할 수 있는 장엄한 찬양곡을 더 많이 작곡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배는 '나'를 중심에 두고 위로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시간이어야 한다. 올바른 찬양곡 선곡으로 예배를 더욱 예배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영적 깨어있음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신앙에세이



주하늘 목사  
(양재파웨일브 중등부)

올해 온누리교회가 선포한 표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매일 무겁고, 정직하게 다가온다. 제자의 길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리키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자신의 존재를 던지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이 부르심의 본질을 '노아의 방주'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서 다시금 떠올리며 오늘 나의 발걸음을 점검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보다 나의 시계를 멈추고, '하나님의 때' 앞에 겸허하게 머무는 일이다. 성경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 그 문을 직접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증언한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였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창 7:16).

노아에게 구원의 시작과 끝, 그리고 심판의 기한을 정하는 결정권이 없었다. 방주 안에서의 기약 없는 시간은 어쩌면 가장 고통스럽고 치열한 순종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나의 조급함과 계획이 가로막힐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곤 한다. 그러나 참된 순종은 문을 닫으시고 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견디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발걸음을 기억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권사칼럼

"CGN 위한 기도모임에 초대합니다"



최영희 명예권사  
(용산공동체)

CGN 기도모임 금요일 팀 소속으로 참여한 지 4년 되었다. 현재 18명이 한 달에 두 차례 모여 뜨겁게 기도한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끼며 많은 은혜를 받는다. 또 팀원들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서로를 북돋우고 의지하는 것도 큰 기쁨이다.

내가 CGN의 중요성을 깨달은 계기는 사역과 관련 있다. 2012년, 남편과 함께 'Why Mission!'에 참가했다. 교육 과정 중에 아제르바이잔 아웃리치가 있었다. 그 아웃리치에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위치한 바쿠국립대학을 방문했는데, 큰 도전을 받았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 선교지에서 일하며 선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 날 이후 국제교류재단의 외국 파견 교수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아웃리치로 방문했던 아제르바이잔 바쿠국립대학 한국어문과에도 파견한다는 내용이였다. 나는 주저 없이 지원했고, 2년 동안 한국어 교수로 근무할 기회를 얻었다.

바쿠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돌아보면 가장 먼저 '당혹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 지역은 무슬림권이라 도시 전체가 거대한 회교당 같은 분위기였다. 수업 중에도 예배 시간이 되면 담요를 펴고 절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겉으로는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낯선 상황이 두렵기도 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다.

간혹 내게 종교를 묻는 학생들에게 크리스천이라고 답하면 분위기가 서먹해지기도 했

다. 내게 무슬림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그렇게 영적인 갈급함이 커지던 때 CGN을 만났다.

당시 바쿠에서는 한국 방송 자체를 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고립감을 느꼈는데, CGN 안테나를 통해서 온누리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감사였다. 그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절감했다.

그렇게 나는 CGN과 친구가 되었다. 무슬림의 기도 소리만 울리는 환경에서 CGN의 복음 방송은 우리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남편은 내가 강의하러 간 동안 CGN을 들으며 지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슬림 땅에서 우리 부부는 CGN을 통해 영적으로 채워졌다.

물론 바쿠 지역에도 선교사님 중심의 교민 예배가 존재한다. 하지만 무슬림권에서 느끼는 영적 갈급함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선교지나 오지에는 CGN이 더욱 필요하다. CGN을 통한 믿음의 전파는 우리가 예배에서 얻는 기쁨까지 멀리 전하는 직접적인 길이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영화 '무명(無名)', '바울로부터' 같은 양질의 복음 콘텐츠뿐 아니라 말씀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것도 큰 은혜이다. 그래서 CGN을 위한 기도모임에 더 많은 성도님의 참여를 간절히 바란다.

"CGN 드림온맘"은 CGN을 위한 기도모임입니다. 서빙고, 양재, 수원, 남양주, 팽택 캠퍼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CGN 직원들과 미디어 선교, 후원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모임 일정은 캠퍼스별로 다르고, 매번 두 차례 연합기도 모임을 합니다. CGN과 연계한 다양한 봉사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드림온맘'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누립시다!"

문의: 02-796-2243

"나를 따르라!"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창 8:15-18).

이어지는 '제자의 길'은 방주라는 안전한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공간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라는 피난처에 영원히 가두어 두지 않으셨다. 물이 빠진 뒤, 그를 다시 척박하고 황량한 세상 속으로 내보내셨다. 그곳은 노아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일궈야 할 사명의 전초기지였다.

분주한 사무실, 고요한 거실, 왁자지껄한 교실, 혹은 낯선 선교의 땅 같이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모든 공간은 우연히 주어진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공간을 맡기셨다. 단순히 머무는 것을 넘어 그 땅의 어둠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고,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라는 엄중한 파송이다. 방주 밖의 세상은 위험하고 고단하지만, "나를 따르라"고 하

신 예수님은 늘 그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순복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공간을 책임지는 삶의 태도이다. 예수님이 멈추라 하시는 시간에 기꺼이 멈춰 서고, 가라 하시는 장소로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유일한 응답은 묵묵한 순종뿐이다.

방주의 문은 언젠가 반드시 닫힌다. 그러나 그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우리에게 열린 세상이라는 사명의 땅이 주어져 있다. 나의 조급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파송하신 그 험한 공간으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한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거룩한 발걸음을 땀 때, 우리가 딛는 모든 땅이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4: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일 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일 오전 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분당
수요일 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민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장애인 고등&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태주 목사(010-6690-7694)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꿈사랑부
대상: 장애 유아, 초등, 중등학생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김주희 전도사(010-4578-051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 - 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2층 콘서트홀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미션
러시아어예배 11:0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민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째 주)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째 주)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민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1:00 로잔홀
안산미션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방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 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방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방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일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 29 비전빌리지 서를 은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종방총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요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요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양재 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일 오전 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일 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초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초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어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어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3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690-006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일예배 10: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1부 9:00, 영어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일 오전 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수원 031.895.6500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일 오전 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일 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어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토요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분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일 오전 여성예배 매 주 수 10:00 분당
수요일 저녁예배 매 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토요일예배 10:30 B2 분당
일요일예배 1부 9:00 B2 분당 / 2부 11:30 B2 분당 / 3부(대학청년) 16:00 B2 분당
행복한하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분당
수요일 여성예배 오전 10:30 B2 분당
수요일 청년예배 오후 7:30 B2 분당
차세대예배
영어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꿈팡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민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토요일예배
10:2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30 분당
대학청년(주일) 14:30 분당
영어예배(주일) 9:0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일 오전 여성예배 매 주 수 10:30 분당
수요일 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 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꿈팡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꿈팡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토요일예배
9:50 분당 1, 2층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분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분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꿈팡3부 13:50 드림홀 / 소년부 9:00, 11:30 민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일 오전 여성예배 매 주 수 오전 10:30 분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분당 1, 2층

강동 02.475.9686

토요일예배
10:3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분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10:30 분당
금요일기도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6:20 분당

토요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홀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일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일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
수요일 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분당
새벽예배 월~금 6:00 분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팡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팡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두드림 수요일예배 10:30 분당
엠티드림 금요일예배 20:00 분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분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분당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분당
수요일 저녁 예배 19:30 분당
토요일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영종 032.752.7937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
수요일 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영종 032.752.7937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
수요일 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영종 032.752.7937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
수요일 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영종 032.752.7937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
수요일 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영종 032.752.7937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
수요일 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Table with 4 columns: 국내 온누리교회, 해외 온누리교회, 미북부, 오세아니아, and others. Lists church member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regions.

Main table with 4 columns: Leadership (임원), Pastors (목사), Deacons (부목사), and other church members. Includes names and titles.

소천 (Obituaries) section listing names and dates of passing.

복지재단 (Welfare Foundation) section listing various support programs and contact info.

상담 (Counseling) section listing counseling services and contact info.

광고 (Advertisements) section listing various church-related ads and services.

CGN 21주년

# 개국 특집 프로그램

Christian Global Network



## 땅끝의 증인들

바톤터치 끝나지 않는 선교의 여정

아프리카 최빈국 '차드'의 1호 선교사 양승훈 선교사와 동역자들을 통해 전하는 끝나지 않는 선교의 이야기.



본방송 4월 5일(일) 오전 10시 30분



## 소년이 어른이 되어

MK의 고백, 10년 후



타국에서 자라나 특별한 정체성을 지닌 MK 10년 전, CGN을 통해 만났던 MK들의 특별한 성장 기록을 다시 만나본다.



본방송 3월 29일(일) 오전 10시 30분

## 태국 CGN 개국 15주년 기념 다큐 복음을 위해 한 걸음 더

태국 전역의 험지로 흩어진 세 명의 사역자 그들을 통해 복음 전파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다.



본방송 3월 22일(일) 오전 10시 30분

생방송

## THE NEW 하늘빛향기

삶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 THE NEW 하늘빛향기 가수 김영우와 개국 특집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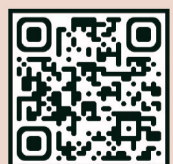


생방송 3월 24일(화) 오후 2시



모든 방송은 **풍당**과 **CGN**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GN 후원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온누리선교재단) ARS 060-705-0000 후원 문의 02-796-2243



풍당 다운로드